

급성혼합성백혈병에서 고용량 cytarabine의 효과

*이순일, 이효락, 박세훈, 송서영, 박준오, 김기현, 김원식, 정철원, 임영혁, 강원기, 이흥기, 박근천
성균관대내내과학교실

급성혼합성백혈병은 두 계열 이상의 면역 표지자를 발현하는 급성백혈병을 말하는데 t(9;22)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급성혼합성백혈병에서의 관해유도요법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되는 표준 복합화학요법을 주로 사용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사용되는 약제를 추가하지만 아직 표준 관해유도요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과거에 치료받지 않았던 급성혼합성백혈병 환자의 관해유도요법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고 특히 고용량 cytarabine(HDAC)의 치료효과와 독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한 면역표현형 및 세포화학염색으로 두 계열 이상의 표지자를 발현함을 확인하여 혼합성백혈병으로 진단된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연령은 34.5세(범위 17-66세)이었고 남녀비는 6:6이었다. 염색체 이상으로는 t(9;22)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해유도요법으로 사용된 제제는 HDAC(cytarabine 3g/m² IV q12 hr D1-6)이 7명, DPVL이 3명, IA(idarubicin 12mg/m² D1-3, cytarabine 100mg/m² D1-7)가 1명이었으며 1명은 치료전 조기사망하였다. HDAC군 7명중 5명에서 완전관해에 도달하여 HDAC군의 관해율은 71%이었으며 DPVL군은 33%, IA군은 0%이었다. 완전관해에 도달한 6명 중 3명은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으며 2명은 강화요법을 받았다. HDAC 관해유법중의 혈액학적 독성으로 ANC >500/ μ L가 되는 중앙값이 33일이었고 platelet >20,000/ μ L가 되는 중앙값은 25일이었으나 관해유도요법 중에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전체 환자의 1년 무백혈병생존율은 83%이었으며 1년 전체생존율은 42%이었고 HDAC 군의 1년 전체생존율은 71%이었다. 전체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로 관해유도요법의 종류(HDAC vs DPVL/IA)만이 의미있었다(p=0.024). 결론적으로 급성혼합성백혈병에서 HDAC 관해유도요법은 효과적이며 그 독성은 견딜 만하다고 생각한다.

단일기관에서의 VPD(L) 관해유도요법을 이용한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성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박숙련*, 김지현, 김도연, 이세훈, 윤성수, 박선영, 김병규, 김노경

목적: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치료받았던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치료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1994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내과에서 새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었던 환자 총 59예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59예 중 53예에서 평가 가능하였다. 관해유도요법에 사용된 regimen은 VPDL (46예), VPD (7예)였고 완전관해에 도달한 경우 VPDL, VPD, MA, allogeneic BMT 등으로 공고요법을 시행하였고 VP와 MTX/6-MP로 유지요법을 시행하였다.

성적: 평가 가능한 53예 환자의 성별은 남자 30예, 여자 23예이었고, 연령분포는 16-67세까지로 그 중앙치는 30세였다. FAB분류에 따른 형태학적 아형의 분포는 L1이 28예(52.8%), L2가 11예(20.8%), L3가 2예(3.8%)였고 세포유전학 검사는 시행된43예 중 5예(11.6%)에서 Philadelphia염색체가 발견되었다 면역표지자검사는 B-cell precursor형이 36예(70.6%), mature B-cell형이 3예(5.9%), T-cell형이 12예(23.5%)였다. 53예중 관해 유도 요법 시행 후 46예(86.8%)에서 완전 관해를 보였다. 전체 환자의 생존 기간은 17.9개월(이하 중앙치)(14.3-21.5개월, 95% C.I.)이었으며 무병 생존 기간은 13.8개월(9.3개월-18.3개월, 95% C.I.)이었다. 관해군의 생존기간은 20.3개월(16.4-24.3개월, 95% C.I.)이었고, 비관해군의 생존 기간은 1.6개월이었다 (P<0.0001).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5.4%였으며, 관해도달군의 4년 무병 생존율은 26.6%였다. 추적기간 중 재발율은 58.7%였다. 무병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 당시의 예후 인자는 FAB분류 L1(P=0.001)와 종격동 종괴유무(P=0.01),성별(P=0.03)이며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 당시의 예후 인자는 성별(P=0.03), FAB분류 L1(P=0.001), B-cell precursor형의 면역형아형(P=0.04)이었다.

결론: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성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 치료성적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다수의 환자에서 재발을 하므로 예후 인자의 분석에 따라 적절하게 화학요법 혹은 조기 골수 이식을 시행할 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